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10.1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유로폴, 틱톡과 온라인상 극단주의 확산 방지 노력 강화
 - 10.5 유로폴 대테러센터는 짧은 영상 공유 플랫폼(TikTok)과 온라인상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탐지·제거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, 테러범의 온라인 급진화 방지를 위해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
 - ※ TikTok은 최근 보고서에서 극단주의 콘텐츠 95%를 제거하였다고 설명
- 튀르키예,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족 무장세력 58명 사살
 - 10.8 언론은 튀르키예가 수도 앙카라 폭탄테러 이후 무장세력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, 전날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노동자당(PKK)*과 쿠르드민병대(YPG) 무장세력 58명을 사살했다고 보도
 - *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무장단체로 1일 앙카라에서 폭탄테러 시도

중동

- 국제사회,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행위 반응 온도차
 - 10.10 언론은 미국 등 서구권 5개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였으나, 중국·러시아·아랍권 국가들은 중립적인 태도로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다고 보도
 - ※ 이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설 부인, 해당 공격을 이스라엘의 억압적 정책에 맞선 합법적 방어라며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
- 이스라엘·팔레스타인 무력 충돌로 2,000명 이상 사망
 - 10.11 언론은 지난 7일 시작된 이스라엘 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 1,200여명, 팔레스타인 900여명 등 약 2,100명이 사망했으며 희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
 - ※ 이스라엘군이 발견한 하마스 무장대원 시신 1,500여구는 미포함

아 · 태평양

○ 韓, 생물테러 대비 국내 '탄저백신' 개발 성공

- 10.5 언론은 질병관리청이 생물테러에 대비한 탄저백신을 개발하여 이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백신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, 내년부터 본격적인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

※ 한국은 미국 911 테러 및 탄저 우편물 테러 이후 '02년부터 탄저백신 개발 시작

○ 韓 경찰청, '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' 개최 예정

- 10.5 경찰청은 10.18~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'국제치안산업대전'을 개최, 대테러·모빌리티 등 9개의 전시관 운영 및 프랑스·헝가리 등이 참여하는 '국제 대테러부대 토론회' 등 31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

○ 인도, 총리 암살 및 경기장 폭파 협박 이메일 수신

- 10.8 인도 국가수사국(NIA)은 '크리켓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나렌드라모디 스타디움에서 「모디」 총리를 암살하고 스타디움도 폭파하겠다'는 테러 협박 이메일을 수신,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

○ 중국 - 사우디, 23년 해군 특수 작전 연합훈련 실시

- 10.10 언론은 중국 - 사우디아라비아 해군 특수작전부대 100여명이 인민해방군 해군여단 캠프에서 기초 및 전문교육, 종합훈련 등 해외 해상 대테러작전 위주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대테러작전으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무력화

- 10.9 언론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州에서 진행한 대테러작전으로 인질 10명을 구출하였으며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31명을 사살하고 6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

아프간, 모스크 예배 중 자폭 테러 발생

- '21.10.8 아프간 북부 쿤두즈 지역의 시아파 모스크(이슬람 예배당)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, 46명이 사망하고 143명이 부상
- 'ISIS-K(ISIS-호라산 지부)'는 텔레그램으로 同 테러 배후를 자처하며, “기도시간에 맞춰 시아파를 노려 테러 자행했다”는 성명을 발표
 - ※ 아프간에서는 85~90%가 수니파 무슬림이며 ISIS는 소수파인 시아파를 배교(믿던 종교를 배반) 집단으로 간주
- 특히, ISIS-K는 같은 수니파인 탈레반이 미국과 평화협상 등을 벌이자 배신자라고 비난하며, 아프간에서 지속적으로 테러* 감행
 - * '21.8.26 카불 국제공항 자살폭탄 테러(182명 사망), '21.9.18~19 잘랄라바드 연쇄 폭탄테러(15명 사망), '21.10.3 카불 모스크 폭탄테러(12명 사망) 등
- 한편,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'공식정부'로 인정받기 위해 ISIS-K에 '테러와의 전쟁'을 선포하며 충돌 격화 중
 - ※ 탈레반은 美와 평화협상 당시, 아프간내 '인권 보호·테러 방지'에 노력키로 합의

테러 단체

< ISIS-호라산 지부(ISIS-K) >

- (목표) 호라산 지역*에 샤리아(이슬람 율법)로 통치되는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
 - * 이란어(페르시아語)로 '일출 지역'의 의미로 과거 페르시아제국의 동부 지역을 구성 하던 현재의 이란·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·투르크메니스탄 일대 지역을 통칭
- (테러단체 지정) UN('19.5), 미국('16.1), 호주('17.11), 인도('18.6)
- (활동수법) 도시에서는 軍警 및 정부청사·다중운집장소 대상 자폭테러, 지방에서는 도로매설 폭탄테러·매복공격 등 게릴라戰 전개
- (생성배경) '아프간 탈레반'·'파키스탄 탈레반' 조직에서 소외된 중견 간부들(특히, 파키스탄 부족 자치지역 출신)이 이탈, ISIS에 충성맹세 후 결성
- (주요테러) ('20.8월) 낭가하르州 교도소 습격(29명 사망), 수감 조직원 270명 탈옥지원 ('21.8월) 카불 공항·인근 호텔 자폭테러(182명 사망·200명 부상)